

【특집】

프랑스 철학의 주해 연구 동향:

멘 드 비랑을 중심으로

황 수 영*

【주제분류】 근대프랑스철학, 형이상학

【주요어】 프랑스철학, 고전주해, 프랑스유심론, 반성철학, 신체현상학

【요약문】 근대 프랑스철학에서 멘 드 비랑은 데카르트 이후 최고의 형이상학자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한 세기 이상 우여곡절을 겪었다. 우리의 목적은 멘 드 비랑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프랑스 주해 연구의 한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철학사에서 그간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고전이 몇몇 주석가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활기를 띠게 되면서 멘 드 비랑이라는 철학자가 프랑스 19세기 철학의 거봉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멘 드 비랑의 주해연구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대중과의 소통, 정치적 역학관계, 강단철학과 강단 밖 철학의 관계, 프랑스 고유의 사상의 보존이라는 프랑스철학의 몇 가지 배경들을 살펴볼 수 있다. 비랑 철학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전달하는 과정은 이런 점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런 점들은 철학이 삶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삶을 통해 소비되어야 한다는 프랑스인들의 신념을 반영한다. 우리는 비랑의 주석의 역사에서 고전적인 저자들은 서넛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비랑의 철학을 보는 커다란 시각을 제시하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구성한 저자들로 라베송, 마디니에, 구이에, 앙리라는 네 저자를 선택한다. 이들은 탁월한 독창성과 스타일을 가지고 비랑 철학의 역사적 의미와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 소속????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근대 프랑스철학에서 데카르트 이후 최고의 형이상학자로 평가되는 멘 드 비랑(Maine de Biran)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프랑스 고전주해 연구의 한 모범을 제시하고자 한다.¹⁾ 프랑스철학사에서 17세기가 데카르트의 시대였고 18세기가 볼테르, 루소, 디드로 등이 대표하는 계몽주의의 시대였다면 19세기는 멘 드 비랑의 철학이 풍미하던 시대였다. 멘 드 비랑은 프랑스의 칸트로 불리며 라베송(F. Ravaisson), 라슐리에(J. Lachelier), 부트루(E. Boutroux), 라뇨, 블롱델(M. Blondel), 베르그손, 나베르(J. Nabert), 마디니에(G. Madinier) 등 프랑스 유심론(spiritualisme)의 흐름에 직간접의 영향을 주었고 20세기에는 메를로-뵘띠(M. Merleau-Ponty), 리피르(P. Ricoeur), 앙리(M. Henry)의 신체현상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사실 멘 드 비랑의 철학은 사상의 형성 배경과 독자에의 전달과정의 문제에서부터 저서의 출판과 편집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 및 정치적 오해로 인해 프랑스철학사의 전면에 등장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19세기 말부터 베르그손이라는 거장이 국제적 명성을 얻고 이어 독일철학의 유입과 더불어 실존주의, 정신분석학, 후설의 현상학 같은 사조들이 눈에 띄는 조류들로 철학계를 지배하면서 프랑스의 철학계에서 전통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의 여파가 다소 가라앉으면서 전통사상에 대한 관심이 돌아오고 따라서 멘 드 비랑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우리의 연구는 이와 같은 한 세기 반에

1) 본명은 마리 삐에르 프랑수아 공띠에 멘 드 비랑(Marie Pierre François Gontier Maine de Biran, 1766-1824). 태어날 때는 공띠에 드 비랑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멘이라는 토지를 물려받은 뒤 멘 드 비랑으로 불린다. 보통 멘 드 비랑으로 불리며 약어로 비랑이라고도 한다.

걸친 프랑스철학의 다양한 굴곡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된 멘 드 비랑의 주해 연구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프랑스철학사에서 그간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고전이 몇몇 주석가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활기를 띠게 되면서 멘 드 비랑이라는 철학자가 프랑스 19세기 철학의 거봉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II. 프랑스철학과 멘 드 비랑

1. 멘 드 비랑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프랑스철학의 외적 배경들

16~17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철학은 프랑스의 사회, 문화, 정치적 배경에서 유래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점차 유럽의 문화중심지로 위상을 굳히고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독창적 시도를 거듭하며 새로움의 진원지가 되었다. 격동의 시대에는 정치, 경제와 같이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조형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사상의 영역도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기 마련이다. 몽테뉴,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하는 프랑스사상의 본류는 곧 다양한 지류들로 나뉘어 근대 프랑스철학의 풍요로움을 산출한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상들은 철학자 개인의 독자적인 사색이 시대적 요구를 관통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철학의 여러 조류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이 탄생한 시대와 관련된 철학 외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물론 이 일반론이 구체적 영역에서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 범위가 각 철학자의 상황에 따라 좁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멘 드 비랑의 사상의 탄생과 관련된 프랑스철학의 배경에 한정하여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멘 드 비랑의 철학은 상당히 비정치적이고

비대중적이며 프랑스의 고유한 철학이자 강단 밖에서 이루어진 철학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들만 보면 그의 철학은 외적 배경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위에서 지적한 그의 철학의 특징들은 실제로는 프랑스철학의 정치적 연관성, 대중성, 외국철학에 대한 개방성 및 강단철학과 강단 밖 철학의 관계라는 네 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할 때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멘 드 비랑 자신의 철학의 형성과 전달과정뿐만이 아니라 그의 철학에 대한 연구 동향 역시 이런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멘 드 비랑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특징은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로 프랑스철학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프랑스 내외의 정치사회적 격변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철학의 정치적 연관성은 볼테르, 루소 그리고 디드로 등 이른바 계몽주의자들에서 시작하는 전통이지만 1789년 시민혁명이 일어난 후 더욱 가속화된다. 주지하다시피 계몽주의자들은 관념론(버클리)이나 이원론적 형이상학(데카르트)이 교권 및 왕권과 같은 부당한 권위를 정당화하는 철학이라 하여 배격하고 데카르트의 기계론에서 유래하는 유물론적 일원론을 고수하는데 이런 태도는 당연히 정신이나 생명의 실재성을 부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 생명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생기론(vitalisme) 전통과 의식이나 정신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멘 드 비랑의 유심론의 전통은 비록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혁명의 정신이 퇴조하는 시기에 환영을 받게 된다. 계몽주의의 태도는 차후에 콩뜨의 실증주의로 이어지며 유심론 전통은 베르그손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도 실증주의와 유심론의 대립을 정치적 좌우파로 관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²⁾ 이러한 대립은

2) 뒤르켐(E. Durkheim)의 실증주의와 베르그손의 유심론을 정치적 좌우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루이 뺑또의 논문도 이 맥락임. L. Pinto, "Le débat sur les sources de la morale et de la religion", *L'acte de la recherche*

정치적 관점에서 세워진 것인 만큼 철학이 가진 고유한 문제의식을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령 혁명정신의 약동으로 성장한 유물론적 실증주의는 인간 내면의 고유한 영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의식의 일인칭적 고유성을 주장하는 철학이 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멘 드 비랑의 주석가들은 우선 그의 철학을 불합리한 정치적 오해로부터 구해내는 작업에서 시작한다.

두 번째로 프랑스철학은 외국의 철학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 경향 역시 계몽주의자 볼테르가 영국의 경험론자 로크의 철학을 프랑스에 소개한 후로 가속화된다. 계몽주의자들의 유물론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영국경험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양자가 씨줄과 날줄이 되어 혁명의 철학의 바탕이 되는 완벽한 이론을 구성한다. 반면에 혁명의 정신이 퇴조하던 왕정복고의 시기에는 문교부장관을 지낸 철학교수 빅토르 꾸쟁(Victor Cousin, 1792-1867)이 헤겔과 셸링 등 독일의 관념론을 수입하여 혁명철학에 맞서는 국가철학을 수립한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외국 철학의 도입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것이 동기가 되었다고 해도 차후에 프랑스철학은 영국의 스펜서(H. Spencer)와 밀(J.S. Mill) 등의 후기 경험주의, 진화론, 독일의 신칸트학과, 헤겔과 맑스의 역사철학 등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다양한 지적 전통을 흡수하는 데 결코 인색하지 않은 점에서 자국의 고유한 전통에 충실하게 남아있는 영국이나 독일과는 다르다. 이런 개방성과 달리 멘 드 비랑의 철학은 프랑스 특유의 전통을 대표하는 철학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 이용과 외국 철학으로부터 프랑스철학의 고유성을 보존하려는 해석가들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세 번째로 프랑스철학은 다른 어느 나라의 철학보다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편의상 대중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육받은 문화적 대중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

중의 범위가 상당히 폭이 넓어 전체 국민에게 지적 문화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성이란 요소는 건강하고 발전적인 프랑스철학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 이 특징 역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계몽주의에 맞닿는다. 혁명 정신을 모토로 생겨난 계몽주의는 특히 디드로 등의 백과전서과에 이르러 글을 아는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철학하기를 고수한다. 이 때부터 철학자란 교육자, 계몽가, 선구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 추상적인 이론이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대중과는 거리가 먼 존재라는 이미지는 사라졌다. 비록 오늘날의 프랑스철학은 난해하기로 소문이 나 있고 계몽주의의 본래 취지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지만 근대 프랑스철학이 일찍이 확보한 대중성이라는 요소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멘드 비랑의 철학은 계몽주의와 달리 일반 독자와의 소통을 염두에 두지 않은 탓에 오랫동안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생전에 단 한 권의 책을 출판했을 뿐이고 사후에도 여러 곡절로 인해 편집상의 문제가 많아 대중에게 전달될 기회가 별로 없었다. 따라서 주석

3) 프랑스철학의 대중성의 한 징표는 다수의 철학 대중지들을 중심으로 헤아려볼 수 있다. 철학 전문 잡지들을 제외해도, 문학, 예술을 포함하는 인문 사회과학적 주제와 시사적인 문제들까지 광범위하게 다루는 대중적 호소력이 있는 『문예 잡지(마가진 리페레르, *Magazine littéraire*)』(월간), 『철학 잡지(필로소피 마가진, *Philosophie Magazine*)』(월간), 『정신(에스프리, *Esprit*)』(월간), 『논평(코망테르, *Commentaire*)』(월간), 『도시들(씨테, *Cités*)』(연 4회), 『디오게네스(*Diogène*)』(연 4회), 『사회과학 연구 보고서(*L'acte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연 4회), 『논쟁(르 데바, *Le débat*)』(연 4회) 등등의 잡지들에서 철학은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물론 이 중에서도 전문성을 상당히 확보한 잡지에서부터 대중성을 좀더 목표로 하는 잡지까지 수준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잡지들의 편집은 저널리스트들이 아니라 부르디외, 레비-스트로스, 뺑또 등 유명한 학자들이 직접 참여하며 각 기사는 그 분야의 전문학자들이 저술한다. 일간지에서도 가장 많은 독자를 거느린 『르 몽드(*Le Monde*)』나 『누벨 옵세르바퇴르(*Nouvelle observateur*)』, 『리베라시옹(*Libération*)』 등을 보면 철학자와 철학 저작들에 대한 소식은 상당히 자주 그리고 친근하게 등장한다.

가들의 작업은 우선 제대로 된 편집작업을 하고 알기 쉬운 연구서를 내서 그의 철학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었다.

네 번째로 프랑스철학에는 흔히 말하는 강단철학의 전통보다는 강단 밖에서 형성된 전통이 강력한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7세기에는 예수회학교들이 학문의 터전이었지만 18세기의 계몽사상가들은 살롱을 통해 서로 간의 학문적 교류를 다졌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철학을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루소는 독학으로 업적을 쌓은 인물로 유명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루소가 철학에 입문한 것은 디종학사원(Académie de Dijon)의 공모에 응모한 논문이 수상하게 되면서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인재를 발굴하는 광범위한 통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이른 바 강단철학이 나타난 것은 1806년 나뵈레옹이 국립종합대학 소르본느(Sorbonne)를 세운 후이다. 하지만 초창기에 대학의 철학과에 자리를 잡아 오랜 기간(1815~1855) 군림한 쾰쟁은 매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야망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많은 독창적인 철학자들을 대학 밖으로 몰아냈다. 따라서 19세기 중반까지의 프랑스철학은 대학 밖에서 훨씬 더 생산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다. 멘 드 비랑의 경우는 처음부터 대학과 무관하게 독학으로 철학을 하였는데, 그는 루소와 같이 빠리학사원(Académie de l'Institut de Paris)의 공모를 통해 학계에 등단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철학의 내용에 있어서도 두 사람은 공통점을 보여준다. 루소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색에 의해 당대의 계몽주의자들의 이성만능주의에 반발하면서 자연적 감성을 강조하였듯이 멘 드 비랑 역시 자신의 독창성에 의해 그 시대의 주류였던 콩디약(Condillac), 드 트라시(De Tracy), 까바니스(Cabanis)의 감각주의에 반발하고 의식의 능동성을 주장하는 철학을 구상할 수 있었다.

2. 멘 드 비랑 철학의 전달과 해석 과정

1766년 프랑스 남서쪽 끝에 있는 작은 도시 베르주락(Bergerac)에

서 태어나 1824년 빠리에서 58년의 생을 마감한 멘 드 비랑의 생애는 왕정에서 프랑스혁명과 공화정, 나폴레옹의 독재와 제국주의 전쟁, 왕정복고라는 프랑스사의 굵직한 사건들로 얼룩진 시기이다. 하지만 멘 드 비랑의 고향은 격동의 진원지인 빠리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고 현실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던 비랑은 자신의 개인적 고뇌와 관련된 사색에 몰두할 수 있었다. 1812년 46세가 될 때까지 고향에서 고위행정직을 맡아 행정업무에 충실했던 그는 직업과는 전혀 별개로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의학, 생리학, 수학, 철학을 공부하였고 많은 분량의 일기에 자신의 사색의 편린을 적어놓았다. 1812년 이후 빠리에 가서 정치에 입문했을 때도 그의 철학은 정치와는 계속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그가 철학계에 이름을 나타낸 것은 빠리학사원, 베를린학림원, 코펜하겐학림원이 주최한 철학논문 현상공모에 차례로 수상하게 되면서이다. 게다가 그는 생전에 빠리학사원의 현상공모에서 수상한 첫 저작 『사유에 미치는 습관의 영향』(*Influence de l'habitude sur la faculté de penser*, 1799년에 시작하여 1803년 출판)을 제외하고는 어떤 책도 출판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수상저작들도 계속적인 수정과 가필로 완성을 보지 못해 나중에 편집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원인이 되었다. 물론 그는 고향에서 <베르주락 의학학회>를 창설하여 정기적인 학문적 토론회를 가졌고 빠리에서는 엘베시위스(Elvétius) 부인의 살롱에서 당대 지식인들과의 철학토론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대중이나 학계에 직접적인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은 점에서 은둔철학자의 이미지로 남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멘 드 비랑의 사후에 그의 철학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꾸쟁이였는데, 이 점에서 비랑은 별로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정치적인 철학자에게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비랑이 첫 저작을 출판할 당시(1803) 빠리의 철학계는 계몽주의자 콩디약의 제자들인 데스뫼 드 트라시, 까바니스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서 이미 혁명철학의 동력은 쇠한 대신 좀더 학문적인 관심사에서 감각과 관념의 관계라는

인식론적 문제와 내적 감각에 대한 생리학적 탐구가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이들을 관념만을 가지고 유희하는 이데올로그(Idéologue, 관념학자)들이라고 비난하며 국가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철학이 나오기를 원했다. 이후 왕정복고 시기(특히, 1830~1848)에 꾸쟁은 실제로 혁명 이후의 학문적 쇠퇴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인위적인 국가철학을 세우려는 야심을 보였다.⁴⁾ 그는 데카르트철학의 유심론적 측면과 독일관념론을 융합하여 정신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막연한 절충주의(éclectisme)를 구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혁명철학의 잔재로 생각된 감각주의와 그 계승자인 실증주의자 콩뜨와 뎀느(H. Taine)가 대학 밖으로 밀려나고, 라베송(Ravaisson)과 같은 탁월한 천재철학자도 대학에 발붙이지 못했다. 반면 뎀 드 비랑은 데카르트를 보완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로 선택되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볼로(Volo) 즉 의지로 해석한 뎀 드 비랑은 데카르트에서 스피노자적 범신론의 요소를 제거하고 라이프니츠를 따라 정신의 능동성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실 비랑은 라이프니츠의 활동성(activité)과 힘(force) 개념에서 자신의 의지적 능동성 개념의 개체적 특질을 본다. 따라서 데카르트-라이프니츠-칸트의 절충으로 이어지는 꾸쟁의 정신철학에서 뎀 드 비랑은 매개 역할을 하는 셈이다.⁵⁾

꾸쟁의 이런 정치적 이용 때문에 차후에 비랑은 절충주의적 유심론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그 진면모가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걸

4) J. Lacroix, *Panorama de la philosophie française contemporaine*, P.U.F., p. 243. 이 시기 프랑스에서 대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할 것. J. Dopp, *Felix Ravaisson, La formation de sa pensée d'après des documents inédits*, Louvain 그리고 A. Canivez, *Essai sur la condition du professeur de philosophie jusqu'à la fin du XIXe siècle*(t. I), Belles-Lettres.

5) *Oeuvres philosophiques de Maine de Biran*, Paris, Ladrance, t. IV, p. XVIII (편집자 꾸쟁의 서문). 이 점은 차건희, 「뎀 드 비랑과 프랑스철학의 전통」, 『철학사와 철학, 한국철학의 패러다임형성을 위하여(한국철학회 춘계발표 대회보)』 1998. 5. 204-205쪽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렸을 뿐만 아니라 비랑의 주석가들이 비랑철학의 본모습을 알리려 노력한 후에도 여전히 절충주의라는 오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멘 드 비랑에 대한 쾰쟁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비랑철학의 근본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철학을 세우기 위해 자의적으로 이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멘 드 비랑의 저작의 편집을 시도했으나(1838~1841) 매우 불성실하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는 출판작업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출판되지 않은 비랑의 원고는 무수한 수정과 가필로 인해 세심한 편집작업을 요구하지만 쾰쟁은 처음에 비랑이 학사원들에 제출했던 원고를 그대로 출판했고 게다가 자의로 해석을 달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사실 구이예(H. Gouhier)가 지적하듯이 멘 드 비랑의 사유가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출판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다.⁶⁾ 이 역사는 거의 한 세기가 넘었으며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쾰쟁 다음에는 스위스의 나빌(F. Naville)에 의해 일부가(1845년), 그리고 그의 아들(E. Naville)에 의해 일부가(1857~1859) 출판되었다. 다음에는 제라르(F. Gérard, 1876), 리옹의 베르트랑(A. Bertrand, 1887~1893), 그리고 메요나드(Mayjonade, 1895, 1896, 1907, 1924)가 각각 일부를 출판했고 1906년부터 라 발레뜨 몽브랭(A. de La Valette Montbrun)과 띠쓰랑(P. Tisserand)이 새로운 원고들을 보완하여 전집에 가까운 판본을 냈고 구이예가 1955년 3권의 『일기(Journal)』를 출판했다. 띠쓰랑의 판본이 오랫동안 정본으로 쓰였으나 여전히 비랑 자신의 수정과 가필을 고려하지 않은 원본이었다. 1980년부터 십여 년의 기간동안 아주비(F. Azouvi)의 주도 하에 멘 드 비랑의 전문가들이 모여 비랑 자신의 수고(手稿)를 전체적으로 세심히 검토하여 꼼꼼한 주석과 함께 완성된 전집을 출판하였다.

비랑의 편집자들은 대개 상당한 분량의 해설을 책의 앞부분에 침

6) H. Gouhier, *Maine de Biran, Oeuvres choisies*, Aubier, Paris, p. 5-6. 이 모든 출판본들의 세부내용을 다 열거하자면 상당한 분량이 요구되므로 우리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간략하게 줄여 소개하겠다.

가하여 그의 철학을 충실히 알리는 데 일조하였지만 보통 비랑의 주석의 역사에서 고전적인 저자들은 서넛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우리는 비랑의 철학을 보는 커다란 시각을 제시하고 그것을 설득력있게 구성한 저자들로 라베송, 마디니에, 구이에, 앙리라는 네 저자를 선택 하겠다. 물론 이들 외에도 철학사가 델보스(V. Delbos), 베르트랑(A. Bertrand), 비랑의 편집자인 띠쓰랑 그리고 르루아(G. Leroy), 방꾸르(R. Vancourt) 등은 충실한 해설서들을 통해 비랑을 프랑스의 철학적 대중에게 알린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탁월한 독창성과 스타일을 가지고 비랑 철학의 역사적 의미와 내용을 분석한 위 네 저자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주해 동향을 살펴보려 한다.

우선 라베송은 멘 드 비랑에 대한 독자적인 저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여러 통로에 의해 비랑철학의 의미를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비랑 철학의 해석의 역사에 최초의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다. 그는 19세기 중후반의 프랑스철학을 비랑 못지않게 탁월한 관점으로 수놓은 유심론철학자이기도 하다. 라베송은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대한 과감한 해석을 시도한 두 권의 저서를 내고 26세에 『습관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조숙한 천재성을 보였다.⁷⁾ 그러나 그는 꾸쟁의 절충주의에 비판적인 논문을 쓰고는 그의 시기와 분노 때문에 아쉽게도 강단을 떠났다.⁸⁾ 하지만 55세에 쓴 『19세기 프랑스철학에 대한 보고서』라는 책에서 라베송은 멘 드 비랑이 프랑스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탁월하게 그리고 있다.⁹⁾ 그는 실증주의적 유심론(spiritualisme positiviste) 혹은 유심론적 실재론(réalisme spiritualiste)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멘 드

7) *Essai sur la métaphysique d'Aristote*, t. I, Paris, Imprimerie royale, 1837, t. II, Paris de Joubert, 1846 / *De l'habitude*, Paris, H. Fournier & C°, 8°, 48pp.

8) "Philosophie contemporaine à propos des Fragments de philosophie par M. Hamilton, traduit de l'anglais par Louis Peisse", *Revue des deux mondes*, novembre 1840, tome vingt-quatrième.

9) *Rapports sur la philosophie en France au XIXe siècle*, Fayard, p. 313.

비랑이 그 선구자임을 선언하였는데 이것은 다음 세대의 철학자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위와 같은 표현으로 라베송은 실증적 사실을 중시하면서도 정신의 내면적 관찰을 중시하는 멘 드 비랑의 철학의 특징을 잘 드러냈다. 의식의 일인칭적 사실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사실과는 다르지만 그것도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멘 드 비랑은 그것을 “의식의 원초적 사실”이라고 부른다. 사실 일인칭적 개인의 의식에서 출발하는 서양철학의 전통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빠스칼에 이미 단초가 있다. 데카르트의 경우에는 보편적 주관의 혐의가 늘 따라다닌다. 라베송에 의하면 멘 드 비랑의 독창성은 이 의식 최초의 사실이 데카르트가 말한 순수사유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의식, 신체의 능동적 운동을 의식하는 역동적 사실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라베송은 일종의 실증성을 보는 것이다. 오늘날 실증성은 외적으로 관찰된 사실에 조회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라베송은 내적 사실도 사실인 한에서 그에 조회하는 것은 실증적이라고 본다. 이 해석은 의식과 자연 모두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라슐리에, 베르그손 등 후대의 철학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었고¹⁰⁾ 프랑스유심론을 실증주의적 유심론으로 부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베송이 68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프랑스 철학계는 꾸쟁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늦은 나이에 철학계에 다시 돌아온 라베송은 꾸쟁이 왜곡시킨 프랑스철학의 흐름을 올바르게 재정립하는 데 힘썼다. 그 결과로 멘 드 비랑의 이름은 진면모를 찾을 수 있게 된 셈이다.

10) 본인의 『근현대 프랑스철학』(철학과 현실사 2005. 12) 참조. 257, 277-283쪽.

III. 멘 드 비랑의 주해 연구의 역사

1. 가브리엘 마디니에(G. Madinier, 1895-1958)

마디니에는 멘 드 비랑과 프랑스유심론 전통을 충실히 이어받은 반성철학(*Philosophie de la réflexion*)의 대표자이다.¹¹⁾ 그는 자신의 국가박사학위논문이자 최초의 방대한 저서인 『의식과 운동(*La conscience et mouvement*)』에서 라베송의 정신을 따라 프랑스유심론과 그 기원 및 그로부터 흘러나온 다양한 지류들을 추적한다.¹²⁾ 그는 이 책에서 비랑의 철학을 상당한 지면을 할당하여 분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전과 이후의 철학사를 비랑의 철학을 준비하고 그의 정신에 의해 전개되는 흐름으로 묘사한다. 비랑 이전이라는 것은 콩디약과 데스뫼 드 트라시, 까바니스, 라로미귀에르(Laromiguère), 루아예-폴라르(Royer-Collard) 등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비랑을 중심으로 이전, 이후의 프랑스철학사를 규정하는 것 역시 라베송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다.¹³⁾

라베송은 『19세기 프랑스철학에 관한 보고서』를 쓰기 이전 27세

11) 반성철학은 멘 드 비랑의 전통을 이어받은 20세기 초중반 프랑스철학의 한 조류이다. 의식과 자아의 문제에서 비롯하는 정신의 삶에 대한 연구로 장 나베르(J. Nabert), 루이 라벨(L. Lavelle), 알랭(Alain), 페르디낭 알끼에(F. Alqui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앞에 인용된 장 라크루아(J. Lacroix)의 책 참조.

12) *Conscience et mouvement, Essai sur les rapports de la conscience et de l'effort moteur dans la philosophie française de Condillac à Bergson*, Paris Librairie Felix Alcan, 1938.

13) 루아예-폴라르는 소르본 대학의 제 1세대 철학교수. 절충주의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멘 드 비랑이 죽었을 때 그는 “비랑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었다”라고 말함으로써 비랑 철학이 당대 철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증명했다.

때 쓴 해밀턴철학에 관한 논문에서 쾨쟁의 절충주의를 비판하며 간략한 프랑스철학사를 제시하고 있다.¹⁴⁾ 그것은 영국의 경험론이 프랑스로 건너오면서 내밀한 변형을 겪게 된다는 지적으로 시작한다. 이 변형은 로크의 프랑스 후예로 일컬어지는 콩디약에서 이미 시작되고 드 트라시와 까바니스 등을 거쳐 멘 드 비랑에서 의식 철학으로 재탄생한다. 라베송은 영국경험론이 외적 사실의 분석에 그쳤다면 칸트로 대표되는 독일관념론이 현상의 인식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하면서 프랑스철학에서 새로운 반성과 도약의 기회를 찾았고 멘 드 비랑이야말로 “프랑스철학의 개혁자”라고 불릴만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베르그손 역시 완벽한 동의를 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베르그손은 영국경험론과 칸트의 현상주의가 상대적 인식에 머문 반면 비랑은 적어도 의식의 원초적 사실에서 절대에 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냈다고 말한다.¹⁵⁾

이처럼 마디니에는 라베송의 안내를 따라 영국경험론이 콩디약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부터 검토하기 시작한다. 사실 이 책의 부제는 『콩디약에서 베르그손까지 프랑스철학에서 의식과 운동적 노력의 관계에 관한 시론』이다. 우선 해석가의 입장에서 마디니에는 매우 충실하게 원전에 조회하여 콩디약의 철학을 올바르게 드러내고 있다. 델보스는 이미 콩디약이 그간 감각주의자(sensualiste)라는 부당한 명칭으로 많은 오해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마디니에의 연구는 콩디약의 진면모를 파헤치는 성과도 올리고 있다.¹⁶⁾ 그는 감각에 대한 ‘논리주의’적 분석으로 알려진 콩디약의 철학 뒤에서 심리학적이고 반성적인 태도를 간파하여 이를 멘 드 비랑에 연결되는 지점으로 보고 있다. 근대 프랑스철학에서 심리학적 태도라는 말은 무엇보다 내면적이고 반성적인 태도를 말한다. 우리는 마디니에의 해석에서 외적 경험론자로 시작한 콩디약이 내적 반성의 철학으로 돌아

14) 앞의 논문 252쪽.

15) Bergson, “La philosophie française”, *Mélange*, pp. 1170-1171.

16) Delbos, *La philosophie française*, Paris, 1919, p. 252.

서는 단초를 볼 수 있는데 사실 프랑스의 심리철학이 관념연합론(associationnisme)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심리주의와 구별되는 지점도 거기에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콩디약은 버클리 의 관념론적 결론을 비판하면서 촉각의 능동적 운동을 통해 외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다. 버클리로 운동이란 현상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인간이 총력에 의해 움직이는 일종의 기계라고 본다면 운동에 대한 감각도 수동적일 것이고 거기서 외적 세계의 진정한 인식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정신의 능동성을 부정한 영국경험론이 주관적 관념론이나 회의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콩디약이 주장하는 촉각의 능동적 운동은 데스뫼 드 트라시에 와서 운동감각 혹은 노력의 감정 일반으로 발전한다. 멘 드 비랑은 이것을 의지적 운동적 노력(l'effort moteur volontaire)이라고 부르며 의식의 원초적 사실로 격상시킨다.

마디니에는 비랑에 관한 서술을 <이론의 형성>과 <형성된 이론>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¹⁷⁾ 습관에 관한 비랑의 첫 저서는 콩디약과 드 트라시 등의 영향 아래서 씌어졌고 비랑이 아직 자신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충분히 의식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확립된 이론이기 보다는 이론의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 반면 『사유의 분해에 관한 논고』(1805)는 비랑이 콩디약, 드 트라시 등과 단절하고 자신의 고유한 입장에서부터 이론을 전개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확립된 비랑의 철학을 볼 수 있다.¹⁸⁾ 콩디약과 드 트라시는 의식의 능동적 현상을 관찰했지만 이들은 아직 생리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들에서는 의지(volonté)와 욕망(désir)이 혼동되어 있는데, 비랑에 의하면 욕망이 단순히 생리적 운동을 야기한다면 의지는 심리적 차원의 능동적 운동을 야기한다. 자신이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근육운동을 의식하는 것, 즉 의지적, 운동적 노력의 감정은 심장의

17) 마디니에의 위의 책, 71-180쪽.

18) *Mémoire sur la décompositon de la pensée*. 이 책은 비랑의 두 번째 저작으로 역시 빠리학사원의 논문현상공모에서 수상한 작품이다.

운동 혹은 몽유병 상태의 운동같은 단순한 생리적, 본능적 운동과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서 비랑은 욕망과 의지의 구분, 수동성과 능동성의 구분, 생리학과 심리학의 구분을 확립하고 이러한 이원론의 토대에서 인간 탐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비랑은 처음에 ‘객관적 관념학(Idéologie objective)’에 대립하는 ‘주관적 관념학(Idéologie subjective)’이라는 말로 이데올로그들과 자신의 입장을 차별화했고 주관적 관념학이라는 말은 나중에 심리학(*la psychologie*)이라는 말로 대체한다. 프랑스에서 심리학이라는 말은 이렇게 탄생하였다. 물론 비랑에서 심리학이라는 말은 여전히 주관적이고 반성적인 의미의 의식 사실을 다루는 인식론이자 인간학에 해당한다.

벤 드 비랑의 심리학에서 의식의 본성이 운동적 노력에 있다는 주장은 자연스럽게 신체의 의미에 대한 고찰로 이어진다. 의지적 노력으로 행사하는 능동적 운동은 의지와 신체라는 이중의 요소와 관련된다. 신체적 운동은 의식의 원초적 사실을 이루는 한 요소가 됨으로써 더 이상 외적 물체와 같지 않게 된다. 가장 내밀한 개인적 의식의 토대가 이미 신체를 전제한다는 통찰은 그의 유심론을 신체를 무시하는 데카르트적 기원의 순수관념론 전통과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만든다. 이 부분이 비랑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라베송과 라솔리에, 베르그손의 유심론은 여기서 풍요로운 자원을 얻는다. 여기서 마디니에는 후대의 철학자들에 미친 비랑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서 프랑스철학의 맥을 선명히 짚어준다.

그러나 비랑의 철학에서 이에 못지않게 프랑스 심리생리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내용은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생리적 사실에 대한 분석이다. 비랑은 잠과 꿈 그리고 몽유병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의지의 능동적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 우리 인간의 일반적 삶을 지탱하는 비의지적(*involontaire*) 상태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다.¹⁹⁾ 이

19) 이 연구는 주로 다음 책에 실려있다. 『베르주락 의학회에서의 토론 (*Discours à la société médicale de Bergerac*)』. 이 책은 <베르주락 의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모은 책이다.

후의 용어로는 무의식적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19세기 말 프랑스 심리학계에서 쌍벽을 이루는 두 거장 떼오빌 리보(T. Ribot)와 삐에르 자네(P. Janet)의 무의식 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²⁰⁾ 마디니에의 연구는 이 점을 놓치지 않는다. 그는 리보와 자네의 심리생리학에서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신체적 운동의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비록 철학과 과학이라는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랑의 생각이 어떻게 변형되어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나긴 결론부에서 뷔를루(Burloud), 쓰공(Second), 발롱(H. Wallon), 무르그(Mourgue), 프라딘느(M. Pradine), 삐아제(J. Piaget) 등 현대심리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의지와 운동, 무의식의 관계라는 비랑의 주제가 여전히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프랑스 심리학이라는 거대한 수로에 물꼬를 트고 방향을 제시한 멘 드 비랑의 기여를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2. 앙리 구이에(Henri Gouhier, 1898-1994)

구이에의 프랑스 철학사연구에서 깊은 통찰력과 왕성한 저작활동으로 프랑스 철학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철학사가이다. 그는 마디니에의 저서와 비랑에 대한 견해를 높이 평가하면서 좀더 세부적으로 멘 드 비랑과 라베송, 베르그손의 관계를 부각시킨다. 그는 1948년에 쓴 「멘 드 비랑과 베르그손」이라는 논문에서 두 철학자의 심층적인 유사성과 차이를 지적하면서 프랑스유심론이라는 커다란 흐름의 존재를 강조한다.²¹⁾ 여기서 비교가 되는 주제들은 비랑의 반성의 방법

20) 멘 드 비랑과 심리학의 관계를 연구한 저서로는 베르트랑과 부치나스가 있다. A Bertrand, *La psychologie de l'effort*, Alcan, 1889. / Boutsinas, *La psychologie de Maine de Biran*, Aubier, 1944. 또한 삐에르 자네는 『심리적 자동주의』라는 유명한 저서에서 자신의 대부는 비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심리학연구에 대한 비랑의 직접적 영향을 언급한다. *L'automatisme psychologique*, nouvelle édition, 1979.

21) "Maine de Biran et Bergson", *Les Etudes bergsoniennes*, Vol. I.

과 베르그손의 직관의 방법, 비랑의 정신철학과 베르그손의 자연철학, 그리고 비랑의 종교적 사유와 베르그손의 종교에 대한 사유라는 세 가지 요점으로 집약된다. 의식 심층의 내적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동일한 태도 위에서 전자는 정신철학의 원조가 되었고 후자는 자연철학을 향해 나아간다.

정신철학과 자연철학의 대비는 구이예가 1961년에 쓴 『베르그손과 복음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된다.²²⁾ 여기서 구이예는 스펜서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베르그손이 비랑과 달리 자연철학과 우주론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베르그손은 자연과학적 문제들로부터 철학적 사색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랑을 읽지 않았다. 하지만 구이예는 라베송의 유심론적 실증주의라는 말을 베르그손이 나중에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가 스펜서의 기계론적 진화론을 비판하고 의식의 관찰에서 시작하는 시간과 지속의 형이상학, 말하자면 진정한 진화론을 확립하게 된 것은 바로 라베송과 라슐리에의 독서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베르그손은 라베송과 라슐리에를 통해 간접적으로 멘 드 비랑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실제로 베르그손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베르그손의 연구가들은 자연과학비판, 지속과 창조, 내적 자유 등 베르그손이 내세운 개념들의 비교할 데 없는 독창성을 강조하면서 유심론적 흐름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다. 결국 두 철학자의 친연관계를 강조하는 구이예의 시도는 베르그손 철학의 높은 대중성과 멘 드 비랑 철학의 비대중성 때문에 대중적 호소력을 얻지는 못했지만 철학계에서는 그의 작업에 힘입어 비랑, 라베송, 베르그손의 관계를 추적하는 몇몇 후속 전문서들이 나오기도 했다.²³⁾

22) *Bergson et le Christ des évangiles*, Arthème Fayard, 1961.

23) 도미니크 자니코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D. Janicaud, *Une généalogie du spiritualisme français*, Nijhoff, La Haye, 1969. 이후 박사논문 주제로도 여러 번 등장함,

멘 드 비랑과 유심론의 맥락을 강조하는 구이예의 해석은 프랑스 철학사 연구 부흥에 대한 그의 관심의 일환이다. 사실 구이예는 20세기 프랑스의 철학계에서 독보적인 철학사가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는 멘 드 비랑만이 아니라 프랑스철학의 거장들, 데카르트와 빠스칼, 말브랑슈, 루소, 콩뜨, 베르그손에 대한 기념비적 저작들을 잇따라 출간했다. 그의 연구는 외국의 철학을 수입하는 데 관대한 프랑스 철학계에서 프랑스철학의 독자적 흐름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각 분야 고전에 대한 명실상부한 주해연구의 모범을 보여준다. 그의 저작은 상당한 인용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후속 연구자들이 그의 권위에 거의 도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철학사가로서의 그의 명망에 대한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그의 연구의 특색에 기인하는 사실이다.

구이예는 거장들의 입장을 인위적 관점으로 통일하거나 현대적 관심에 의해 특별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등의 극적 효과를 노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변형이나 왜곡을 겪은 철학자들의 사상을 최대한 본모습으로 돌리려 노력한다. 이것은 원전만이 아니라 수고, 편지, 일기, 주변사람들의 증언, 행정적 기록 외에도 철학자 개인의 삶의 궤적을 알 수 있는 모든 단서들을 종합한 방대한 양의 자료수집과 꼼꼼하고 성실한 분석이 선행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구이예의 독보성은 우선 이런 측면에서 인정된다.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평이하면서도 미학적인 문체이다. 구이예는 자신의 풍부한 자료를 이야기로 엮는 능력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실제로 연극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극이론에 대한 저작을 쓰기도 했다. 구이예의 책을 보면 독자는 철학자를 주인공으로 한 지적인 추리소설을 읽는 느낌을 받는다. 들뢰즈는 철학책은 추리소설처럼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해연구야말로 그런 방식에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이예로부터 배우게 된다. 실제로 철학사에 대한 구이예의 철학은 “철학이란 개개의 철학들을 통해서만 현실화되며 개개의 철학은 철

학자 개인의 독특한 인격에 의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구이예는 현대 프랑스 철학이 대학 밖에서 지적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며 자유롭게 활개를 치고 있는 동안에 대학 안에서 성실한 주해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대학의 존재의미를 지켰고 많은 성실한 후학들의 좋은 모범이 되었다.

멘 드 비랑에 대한 구이예의 연구서 『멘 드 비랑의 전환점들』(1947)은 위에서 본 구이예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연구이다. 그의 다른 연구서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자료들을 포함하는 두터운 분량이지만 매력적인 미장센으로 독자의 주의를 끌며 지루함을 없애준다. 그는 이미 비랑의 일기 세 권을 편집자로서 출판한 일이 있고 『비랑철학의 발췌본』(1942)에서 그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였는데 이미 여기에도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고 고급의 해설을 곁들여 비랑 발췌본의 모범으로 평가받는다.²⁴⁾ 『전환점들』은 이런 바탕 위에서 씌어졌으며 거기에는 이미 진행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 그의 스타일대로 이 책은 시골의 한 의사의 아들이 루소의 책을 읽으며 사색의 길로 들어서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하지만 곧 당대의 철학적 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뒤따른다. 전환점이란 이러한 당대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비랑이 그 시대의 용어로 철학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습관에 관한 저서) 곧 빠스칼과 루소의 독자로서 자신의 철학을 확립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된다. 이것이 『사유의 분해에 관한 논고』에서 나타난 비라니즘(Biranisme)의 확립이다. 여기서 비랑은 비로소 비랑주의자가 된다. 두 번째 전환점은 플라톤주의로의 회귀이다. 이것은 의식현상에서 출발한 비랑이 본질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를 나타낸 것이다. 세 번째 전환점은 기독교철학으로의 전회를 의미한다. 이는 비랑의 개인적인 삶과 관련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과정과 일치한다.

보통 비랑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첫 번째

24) *Oeuvres choisies de Maine de Biran*, Aubier Montaigne.

전환에서 나타난 의지의 철학이다. 베르그손으로 이어지는 유심론의 맥락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한다. 이런 이유로 다른 연구자들이 첫 번째 전환을 주로 연구하고 다른 부분은 간략하게 다루는 반면 구이예는 비랑의 모든 저작에 동등하게 지면을 할당하므로 비랑의 후기 철학에 대한 중요한 연구성과를 제공하기도 한다. 철학은 철학자 개인의 삶의 반영이라는 그의 이념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구이예는 비랑의 사색의 고비마다 부딪히는 여러 철학자들과의 대화를 빠뜨리지 않는다. 루소와 빠스칼, 콩디약과 이데올로그들만이 아니라 절충주의자들, 라이프니츠, 칸트가 중요한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구이예의 연구의 중요성은 멘 드 비랑을 유심론의 전통에 위치시키면서도 독자적인 연구의 길을 열었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근대 프랑스철학 일반에 대한 그의 연구는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에게 잊혀진 근대와의 대화를 잇는 가교를 형성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3. 미셸 앙리(Michel Henry, 1922-2002)

앙리는 이쁠리뜨(J. Hyppolite)의 제자이고 구이예와 리피르(P. Ricoeur), 알끼에(F. Alquié), 발(J. Wahl)의 지도 아래 1950년 멘 드 비랑에 관한 학위논문을 완성하는데 이것이 「신체의 철학과 신체의 현상학, 비랑의 존재론에 관한 시론」이다.²⁵⁾ 이 책은 비랑에 관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심도 있는 연구서인 동시에 앙리 자신의 철학을 개진하고 있는 철학서이기도 하다. 여기서 나타난 기본 생각들은 나중에 앙리의 대표적 저서인 『현시의 본질』의 토대를 이룬다.²⁶⁾

앙리는 우선 당대에 프랑스에 소개된 후설현상학의 용어들을 사용하여 멘 드 비랑의 철학을 현대화한다. 가령 후설의 지향성 개념에서

25) *Philosophie et phénoménologie du corps, Essai sur l'ontologie biranienne*, P.U.F. 이 책의 출판은 1965년도가 되어야 이루어졌다.

26) *L'essence de la manifestation*, vol. I, II, P.U.F., 1963.

외적 대상을 향하는 의식작용과 내적 상태를 향하는 의식작용을 구분하여 전자를 외재성, 후자를 내재성이라 부르고 비량 철학의 핵심을 내재성(immanence)의 철학으로 규정한다. 비량의 의지적 노력의 개념은 사실상 의식 사실에 대한 내적 관찰에서 유래하는 현상학적 방법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한 면이 있다. 노력은 외적 대상과 유기적 신체(le corps organique)의 근육운동이라는 이중적 저항을 토대로 형성된다. 이 중에서 신체적 저항에서 생겨나는 노력의 의식이야말로 일차적인 것이며 주관성의 가장 심오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양리는 “주관적 신체(le corps subjectif)”라고 부르며 비량의 독창성은 의식의 원초적 사실을 신체성의 의식과 관련시킨 데 있다고 본다. 사실 서양철학사에서 신체는 외적 물체와 유사하게 취급되었고(생리작용) 능동적 의지를 수행하는 운동의 의식은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나는 근육운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외적 대상에 가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동 자체가 직접 세계와 관계한다. 그것은 경험이 아니라 선형적(transcendental) 차원에 속한다. 이러한 운동하는 존재로서의 내 신체가 곧 나이다. 양리에 따르면 “나는 내 신체를 갖는다”라고 말해서는 안되고 “나는 내 신체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 때의 신체는 물론 외적 관찰의 대상 즉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내재적, 주관적 존재로서 개인의 고유한 의식, 자아의 존재감, 즉 자아의식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외적 신체, 생리적 작용의 주체로서의 신체의 위상은 무엇인가? 양리는 이 두 신체는 현시(manifestation)의 두 양태(mode)이며 그 통일성은 에고의 주관적 존재(l'être subjectif de l'ego)에 있다. 이 부분에서 양리는 비량을 비판한다. 비량은 의지적 노력의 주체로서의 신체를 에고와 동일시한 후 수동적인 생리적 신체에 대해서 또 다른 존재를 부여했다. 일반적으로 비량의 철학은 능동적 신체와 수동적 신체의 이원론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리는 비량이 자신의 능동적 신체의 철학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신체적 주관성의 철학에 기초하여 양리는 관념적 주관성의 철학(관념

론)이나 존재론적 일원론(유물론) 모두를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 신체는 지향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후설의 현상학을 역전시킨다. 인식과 행동 사이에는 어떤 거리도 없다. 행동이 곧 인식이다. 그리고 이 바탕에는 생명이 있다. 현상으로서의 의식 사실에 머물지 않고 예고의 존재론과 생명의 철학을 구상한 앙리는 현상학을 넘어선다. 이 시기에 개진된 많은 생각들은 나중까지, 특히 2000년도에 나온 저서 『구현, 살의 철학』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é)와 불안(angoisie)에 대한 분석으로 발전된다.²⁷⁾

이와 같이 앙리의 철학은 멘 드 비랑에 대한 주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앙리는 멘 드 비랑의 철학을 현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독창적 철학을 구축한 점에서 멘 드 비랑의 주석가인 동시에 독자적 사상가의 입지를 굳혔다. 하지만 앙리는 비랑의 철학에서 수동적 신체와 관련된 부분을 무시함으로써 심리학에 끼친 비랑의 영향이라는 엄연한 또 하나의 흐름을 간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리의 업적에 자극을 받은 후대의 연구자들 아주비, 몽떼벨로, 배취, 로메이에-데르베 등은 80년대 이후 비랑의 저서의 새로운 편집과 상당한 분량의 연구서들을 속속 출판하여 비랑 르네상스를 방불케 하는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랑학회를 만들어 비랑 철학을 국제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비랑 철학의 전문 연구에 힘을 쏟고 있어 전문적인 철학연구자들에게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비랑철학의 대중화는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앙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철학이 새롭고 독창적이며 심오한 면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남부 도시 몽뻬리에에 은둔하여 빠리의 인기 있는 철학자들과 거리를 두고 홀로 사색에 몰두한 앙리는 대중의 화려한 시선을 받지 못했다. 앙리 철학의 운명이 비랑 철학의 운명과 유사한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앙리는 비랑과는 달리 연극론, 회화론, 그리고 소설 분야에서도 많은 작품을 남겨 앞으로 더 많은 대중의

27) *Incarnation, une philosophie de la chair*, Seuil, 2000.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게다가 비랑이나 앙리의 사상은 빠른 시간 내에 알려질 수 있는 스타일의 철학이 아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가 빛을 보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연구자들은 일치하고 있다.

멘 드 비랑의 주해연구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대중과의 소통, 정치적 역학관계, 강단철학과 강단 밖 철학의 관계, 프랑스 고유의 사상의 보존이라는 프랑스철학의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비랑 철학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전달하는 과정은 이런 점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런 점들은 철학이 삶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삶을 통해 소비되어야 한다는 프랑스인들의 신념을 반영한다. 그 때문에 프랑스에서 철학은 무엇보다도 대중성이라는 시험대를 거쳐야 한다. 물론 대중적 인기가 있는 철학이 최고의 철학으로 평가된다는 뜻이 아니라 철학의 본래 의미는 결국 우리 삶에 있다는 것, 삶과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멘 드 비랑 원전>

80년대 이후에 아주비(F. Azouvi)가 주도하여 브랭(Vrin)에서 출판한 새 전집(총 13권 중 여기에는 주저만을 소개한다)

Influence de l'habitude sur la faculté de penser, t. II, édité par G. Romeyer-Dherbey, Vrin, 1987.

Mémoire sur la décomposition de la pensée, t. III, édité par F. Azouvi, Vrin, 1988.

De l'aperception immédiate, t. IV, édité par I. Radrizzani, 1987

Discours à la société médicale de Bergerac, t. V, édité par F.

Azouvi, Vrin, 1984.

Rapports du physique et du moral de l'homme, t. VI, édité par F. C.T. Moore, Vrin, 1984.

Essai sur les fondements de la psychology, t. VII(2 volumes), édité par F.C.T. Moore, Vrin, 2002.

Rapports des sciences naturelles avec la psychologie(et autres), t. VIII, édité par B. Baertschi, Vrin, 1986.

Dernière philosophie, morale et religion, t. X-1, édité par M. Launay, 1987.

Dernière philosophie, existence et anthropologie(et autres), t. X-2, édité par B. Baertschi, Vrin, 1989

<일기>

Journal, (1814~1824) 3vol. édité par Gouhier, édition de la baconnière, La Neuchâtel, 1952.

<메 드 비랑 연구서>

Azouvi(François), *Maine de Biran, La science de l'homme*, Vrin, 1995.

Baertschi(Bernard), *L'ontologie de Maine de Biran*, Edition universitaire Fribourg Suisse, 1982.

Bertrand(A.), *La psychology de l'effort*, Alcan, 1889.

Delacoix(H.), "Maine de Biran et l'Ecole médico-philosophique", dans *Bulletin de la Société française de philosophie*, mai-juillet 1924.

Delbos(V.), *Maine de Biran et son oeuvre philosophique*, Paris, Vrin, 1931.

- Gouhier(H.), *Les conversions de Maine de Biran*, Paris, Vrin, 1947.
_____, “Maine de Biran et Bergson”, *Les Etudes bergsoniennes*, Paris, A. Michel, 1948, vol. I.
- Henry (Michel), *Philosophie et phénoménologie du corps, essai sur l'ontologie biranienne*, Paris, P.U.F., 1965.
- Madinier (G.), *Conscience et mouvement, Etude sur la philosophie française de Condillac à Bergson*, Paris, Alcan, 1938.
- Montebello (Pierre), *La décomposition de la pensée*, Millon, 1994.
- Lavalette-Monbrun (A. de), *Maine de Biran, Essai de biographie historique et psychologique*, Paris, Fontemoing, 1914.
- Romeyer-Dherbe y(G.), *Maine de Biran*, Paris, Seghers, 1974.
- Tisserand (P.), *Anthropologie de Maine de Biran*, Paris, 1909.
- Vancourt (R.), *La théorie de la connaissance chez Maine de Biran*, Paris, Aubier, 1944.
- Voutsinas (D.), *La psychologie de Maine de Biran*, Paris, Sipe.

<기타 문헌>

- Bergson, “Rapport sur le prix Bordin”, *Mélanges*, P.U.F.,
_____, “La philosophie française”, *Mélange*, P.U.F.
- A. Canivez, *Essai sur la condition du professeur de philosophie jusqu'à la fin du XIXe siècle* (t, I), Belles-Lettres.
- Destutt de Tracy, *Mémoire sur la faculté de penser*, Corpus des Oeuvres de philosophie en langue française, Fayard.
- Delbos (V.), *La philosophie française*, Paris, 1919.
- J. Dopp, *Felix Ravaisson, La formation de sa pensée d'après des documents inédits*, Louvain.
- Gouhier (H.), *Bergson et le Christ des évangiles*, Arthème Fayard, 1961.

- Henry (Michel), *L'essence de la manifestation*, vol. I, II, P.U.F., 1963.
- _____, *Incarnation, une philosophie de la chair*, Seuil, 2000.
- Janet (Pierre), *L'Automatisme psychologique*, nouvelle édition, 1973.
- Janicaud(Dominique), *Une généalogie du spiritualisme français*, Nijhoff, La haye, 1969.
- J. Lacroix, *Panorama de la philosophie française contemporaine*, P.U.F.
- L. Pinto, “Le débat sur les sources de la morale et de la religion”, *L'acte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n° 153, 2004. 6.
- Ravaisson, *Essai sur la métaphysique d'Aristote*, t. I, Paris, Imprimerie royale, 1837.
- _____, *Essai sur la métaphysique d'Aristote*, t. II, Paris, de Joubert, 1846.
- _____, *De l'habitude*, nouvelle édition, précédée d'une introduction par Jean Baruzi, Paris, Alcan, 1933.
- _____, *Rapports sur la philosophie en France au XIXe siècle*, Fayard.
- _____, “La philosophie contemporaine”, *Revue des deux mondes*, novembre 1840, pp. 396-427 -- Réédition dans *Métaphysique et morale*, Paris Vrin-Reprise, 1986.
- 차건희, 「멘 드 비랑과 프랑스철학의 전통」, 『철학사와 철학, 한국철학의 패러다임형성을 위하여(한국철학회 춘계발표 대회보)』 1998. 5.
- 황수영, 『근현대 프랑스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5. 12.

ABSTRACT

Some tendencies in Commentary on Maine de Biran in
French Philosophy

Hwang, Su-Young

In the modern french philosophy, Maine de Biran is sometime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metaphysician since Descartes. However, the study on this thinker have had various episodes during more than one century. Our objective is to show a history of commentary on Maine de Bian. Thanks to some commentators, Maine de Biran has taken up the first position of the philosophers in the nineteenth century. Through this study, we can see some french philosophical scenes such as the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the relation with the politics and the university, and the conservation of the specifically french characteristics. For this study, we choose four classical authors who each present their original viewpoint: Ravaisson, Madinier, Gouhier and Henri.

Keywords: French Philosophy, Commentary, French spiritualism, Philosophy of reflexion, Phenomenology of body